

독학 간호학사 시험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조사연구

김 애정
(본회 학술부장)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간호교육제도는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1996년 현재 99개의 간호교육기관중 3년제 전문대학이 61개교로 61.6%를 차지하고 있다. 간호교육기관의 전체 입학정원 10,065명중 3년제 간호전문대학이 8,050명으로 약 80.0%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이원화된 간호교육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이를 본회의 주요정책사업으로 채택하여 간호전문대학의 4년제 승격과 전문대학의 동결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하여 왔으나 전문대학의 신설로 입학정원은 계속 늘어가는 실정이다. 3년제 간호전문대학 졸업자는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4년제의 타학과나 한국방송대학교의 타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해야 하는 등 간호학에서의 학위 취득이 어려웠다. 그러나 1992년 한국방송대학교의 보건위생학과의 간호학 전공과정 신설과 독학간호학사 제도의 실시 그리고 1995년 학사학위 특별과정 개설로 매년 6,500명씩 배출되는 3년제 간호전문대학졸업자의 간호학 학사학위 취득의 길이 열렸다.

1992년 독학간호학사 시험이 처음 실시된 제1회 시험에는 3,218명이 응시하여 많은 관심을 일으켰으나 3명만이 합격하여 0.1%의 저조한 합격률을 보이므로써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의 관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후 2회, 3회, 4회에는 349명, 393명, 175명이 응시하여 1회에 비해 응시자 비율의 급격한 감소를 보

였고, 응시율이 10.8%에서 5.0%로 감소하였으며 합격률은 0.1%에서 4.6%로 1회에 비해 높아졌으나 독학사 전체학과의 합격률(4회 23.3%)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독학간호학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간호학 부분의 평가영역 개발과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토론회 개최, 독학간호학 부분의 교재 개발 등을 통하여 독학간호학사 학위과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왔다.

금번에는 4회에 걸친 독학사 시험으로 배출된 62명의 독학간호학사 취득자를 대상으로 독학간호학사 제도의 현황과 독학간호학사의 낮은 합격률의 요인을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과 독학간호학사 응시자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독학간호학사를 취득한 회원을 대상으로 독학간호학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4회에 걸친 독학간호학사 취득자 62명중 설문지에 응답한 18명이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자가 작성하고 학술위원회에서 검토된 구조

화된 설문지로서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4문항, 독학 간호학사시험에 관한 의견 5문항, 독학간호학사시험과목 및 평가영역에 관한 문항 17문항, 독학간호학사학위제 도의 학습방법 및 문제점에 관한 의견 3문항, 기타 2문항,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1996년 7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30일 동안이었다. 자료수집방법은 대상자에게 연구 취지를 설명한 공문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부 및 회수하였는데 회송 18건, 반송 5건으로 총 회수율은 29.0%였다.

III. 문현고찰

1. 독학사 제도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고등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해 정부로 부터 1990년 4월 7일자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4227호로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독학자들에게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므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의도로써 제정되었다. 독학학위제는 대학교육의 최적 기회를 상실한 성인들에게 일정기간의 비정규교육(non-formal education)의 성격을 띤 대학교육의 기회를 부여한 후에 자격을 갖춘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함으로써 사회적 인정을 제도화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 제도는 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대학교육의 적정한 생활연령(chronological age)을 넘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므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인간학적 측면에서 공헌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사회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생활처지와 상황에 따라 스스로 학습하여 그들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성취지향적사회(achieving society) 건설이라는 새롭고 참신한 사회봉토를 조성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독학학위제는 대학교육의 수요증가라는 사회적 현실과 학습자 중심의 평생교육이념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전통적인 대학교육체제만으로는 급격히 증가하는 대학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되었

고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평생교육의 이념은 정규고등 교육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학습자의 필요와 여건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습자는 스스로의 능동적 학습을 수행하는 교육과정을 추구하고 있다(1991, 중앙교육평가원).

2. 간호학 독학학위제도의 시행경과

우리나라의 간호교육기관은 1950년대 11개교, 1970년대 46개교, 1996년 현재 99개교로 40년동안 9배 가 증가하였으며(김조자, 1996), 1996년 현재 4년제 간호학과가 38개교(정원 8,050명), 3년제 전문대학이 61개교(정원 1,895명)로 입학정원이 3년제 간호과가 81.1%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배출되는 간호사의 80% 정도가 3년제 졸업자이며 의료법에 준한 의료인중에서 이원화된 교육제도를 갖고 있는 의료인은 간호사와 조산사이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985년부터 간호교육제도의 4년제의 일원화를 주요 정책사업으로 채택하여 꾸준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1979년 문교부에서는 전문대학 졸업자가 대학에 편입학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보건계열 중 간호전문대학 출신자에 대해서는 동계대학 간호학과에만 편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고, 1980년 9월 간호전문대학 졸업생의 4년제 대학편입학 가능한 학과를 간호학과 외에 10개학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1982년부터 대학 졸업정원제가 도입되면서 간호전문대학졸업자의 대학 편입학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되었다(대한간호협회 제1차 장기사업보고서).

1979년 대한간호협회가 전국 38개 간호전문대학 교직원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위과정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학사과정 요구자가 응답자 3,150명 중 2,356명(교직원 86명, 졸업생 2,270명)으로 74.8%, 학사후 석사과정 요구자가 794명(교직원 110명, 졸업생 684명)으로 25.2%로 나타났다(대한간호협회 제1차 장기사업보고서).

1988년 약 93%에 달하는 3년제 간호전문대학졸업생이 직장에서 승진기회를 얻지못하는 불이익과 이에 따라 많은 수의 졸업생이 학사학위취득을 위해 전공분야와 관련없는 다른 방송통신대학내 다른 학과에 편입학 하는 등 간호전문대학 졸업자의 간호학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방안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3년제 졸업자의 계속교육의 기회부여와 학사학위취득을 위해 1985년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내 간호과 설치를 계속추진하여 1992년 한국방송통신대학 보건위생과내에 간호학 전공과정이 설치되어 3학년 편입생 1,000명 모집을 시작으로 1994년에는 모집정원 2,500명으로 증원되었다. 1994년 2월 264명의 첫 졸업생이 배출되기 시작하여 1995년 2월 477명, 1996년 2월 848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1990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된 후 1992년 독학학위 전공과정에 간호학 전공분야가 개설되어 간호전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의 경우 1-3단계 시험을 거치지 않고 마지막 4단계 시험인 학위취득 종합시험만 통과하면 간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3년제 간호전문대학 졸업자가 4년제 대학의 학위부설과정에서 간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1995년부터 초당산업대 간호학과(정원 120명)에 학위부설과정 설치를 필두로 연세대 간호대학(정원 20명), 한림대 간호학과(정원 80명), 부산가톨릭대(정원 40명)에 4년제 간호학과의 학위부설과정이 설치되었다.

이로서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들은 간호학 학사학위를 위해 독학간호학사 취득, 한국방송통신대학내 보건간호학과에 편입학, 4년제 간호학과내에 특별학위과정 등을 통해 간호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중에서도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은 한국방송통신대학이나 학위특별과정에 비해 단기간에 1회의 시험으로 간호학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독학간호학사 제도 추진 활동

대한간호협회는 1991년 3월 독학에 의한 학사고시에 간호학과가 증설분야로 포함됨에 따라 1991년 9월 독학에 의한 간호학사 고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독학에 의한 간호학사 취득제도를 수용하기로 하고 1991년 독학에 의한 간호학사 고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1991년 독학에 의한 간호학사 고시 시험과목을 확정하였고 1992년 6월 독학간호학사 시

험준비 지원을 위한 대표자회의 개최와 1992년 9월 독학간호학사 교육 강사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1992년 12월 제1회 시험실시후 1993년 독학간호학사 합격률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1992년 "독학에 의한 간호학사 시험 실시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39부를 회수(회수율 36.9%)하였고 그 결과 응답자의 60.0%가 시험에 응시하겠다고 응답하였다(대한간호협회 내부자료). 독학에 의한 간호학사 시험에 관한 높은 관심도는 1회 시험에서 나타났는데 1992년 실시된 제1회 독학 간호학사시험에서는 3,218명이 응시였다. 그러나 높은 관심과 많은 응시자수에 반해 3명 합격이라는 낮은 합격률이 나타남으로써 2회부터 응시자수는 349명, 393명, 175명으로 1회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였다.

독학간호학사 응시이유로는 "해당분야의 전문인이 되기위하여"가 44.0%, "대학원 진학을 위하여"가 25.8%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승진 및 보수의 보상이 기대되므로"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기 때문에"는 각각 5.3%, 4.7%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대한간호협회는 제1회 독학사 시험을 치루고 난뒤 1993년 독학사 합격률 제고를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1993.7)한 바 있는데 국립교육평가원의 이기찬 전공과정 실장은 간호학 독학사 합격율이 낮은 점을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독학사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준비기간이 짧았다는 점, 타 분야는 1-4단계가 연결되어 있는데 간호학은 4단계 시험만 실시한다는 점, 문제의 난이도가 높았다는 점(50.0%), 변별도가 낮은 문항이 많았다는 점, 수험자의 88.0%가 중간정도의 능력수준이었으나 능력수준보다 상위의 문제가 너무 많았다는 점(35.0%)을 들었다.

그러나 독학간호학사 제도가 실시된지 4년이 되지만 독학사 시험의 준비기간이 충분함에도 간호학 분야에서의 합격률은 여전히 낮으며, 독학사 응시율은 여전히 낮은편이다.

4. 독학사 응시 및 합격 현황

독학 간호학사 시험의 응시자수를 전체학과와 비교해보면 1회 83.1%를 차지하여 전체적으로 간호학과 응시자가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나 2회, 3회, 4회에는 19.

4%, 17.7%, 6.9%로 전체학과에 비해 응시자 비율이 점차 감소하였다(표 1참고).

표 1. 독학사 시험의 전체학과와 간호학과의 응시자 수 비교

회 수	응 시 자 N		비 율 (%)
	전체학과	간호학	
1회	3,872	3,218	83.1
2회	1,802	349	19.4
3회	2,218	393	17.7
4회	2,547	175	6.9

독학간호학사시험의 합격률을 보면 1회 응시자수 3,218명 중 합격자 수는 3명으로 합격률 0.1%이며, 2회 응시자수 349명에 합격자수 39명으로 합격률 11.2%, 3회 응시자수 393명에 합격자수 12명으로 합격률 3.1%, 4회 응시자수 175명중 합격자수 8명으로 합격률 4.6%로 전반적으로 합격률은 1회에 비해 높아졌으나 타학과에 비해 낮았다(표2참조).

독학간호학사의 합격률을 독학사 전체학과와 비교하면 1회의 전체 합격률은 3.8%에 간호학은 0.1%, 2회 전체 합격률 28.5%에 간호학은 11.2%, 3회 전체 학과 합격률 20.6%에 간호학은 3.1%, 4회 전체 학과 합격률 23.3%에 간호학은 4.6%로 간호학 독학사 합격률은 전체 학과 합격률에 비해 낮았다(표 2참조).

표3. 학과별 합격률 비교

회 수	구 분	합 계	국 어	영 어	경영학	법 학	행정학	유 아	수 학	가정학	전 자	농 학	간호학
			국문학	영문학				교육학					
2회	지원자수	2,097	192	179	209	155	98	312	2	91	409	10	4402
	응시자수	1,802	178	163	181	136	79	268	2	85	353	8	349
	합격자수	514	77	92	51	61	35	45	1	28	81	4	39
	(%)	(28.5)	(43.3)	(56.4)	(28.2)	(44.9)	(44.3)	(16.8)	(50.0)	(32.9)	(22.9)	(50.0)	(11.2)
3회	지원자수	3,156	442	399	399	264	190	230	2	260	694	13	2653
	응시자수	2,547	379	325	325	204	148	183	1	222	537	10	175
	합격자수	594	62	186	57	33	55	32	1	91	65	4	8
	(%)	(23.3)	(16.4)	(56.9)	(17.5)	(16.2)	(37.2)	(17.5)	(100.0)	(41.0)	(12.1)	(40.0)	(4.6)

표2. 독학사 시험의 전체학과와 간호학과의 합격률 비교

회 수	전체학과 합격자수	백 분 율	간 호 학 합격자수	백 분 율
1회	147	3.8	3	0.1
2회	514	28.5	39	11.2
3회	458	20.6	12	3.1
4회	594	23.3	8	4.6

또한 독학사 시험 중 타학과의 합격률을 비교해보면 2회 시험에서의 타학과의 합격률은 16.8%에서 56.4%사이였고, 4회 시험에서는 12.1%에서 100.0%사이로 간호학은 2회 11.2%, 4회 4.6%로 가장 합격률이 낮았다.

2회와 4회 시험의 응시자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타과의 응시자수(국어 국문학, 영어 영문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가정학, 전자계산학, 농학)는 늘고 있는 추세인데 간호학 분야의 응시자수는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타과의 경우(유아교육학 제외)는 1단계부터 단계별로 합격된 자가 4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단계별 합격자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표3 참조).

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4에 의하면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20~30세가 66.7%, 31~40세가 33.3%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근무처는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학교(양호교사, 교련교사)가 각각 33.3%였다.

근무경력은 1~5년이 44.4%로 가장 많았고 6~10년이 33.3%였다.

표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인 수	백 분 율
연령		
20세 ~ 30세	12	66.7
31세 ~ 40세	6	33.3
현재 근무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6	33.3
보건기관(보건소, 지소, 보건진료소)	3	16.7
학교(양호교사, 교련교사)	6	33.3
대학원 재학중	2	11.1
기타(학원강사)	1	5.6
근무경력		
1년미만	3	16.7
1년~5년	8	44.4
6년~10년	6	33.3
11년~15년	1	5.6
계	18	100.0

2. 독학간호학사 평균 응시회수

표 5에 의하면 독학간호학사 취득자의 시험 응시회수는 2회로 66.7%, 1회 응시하여 바로 취득한 자는 6명으로 33.3%였다.

표5. 독학간호학사 평균 응시회수

구 분	인 수	백 분 율
응시회수 1회	6	33.3
2회	12	66.7
계	18	100.0

3. 독학사 응시이유

표 6에 의하면 독학간호학사 취득자의 응시이유는 "자기성취감을 위해", "대학원 진학을 위해", "대학졸업자로서의 사회적 인정을 받고 싶어서"의 순위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가 1992년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독학사를 응시하고자 하는 이유를 "해당분야의 전문인이 되기 위하여(44.0%)", "대학원 진학을 위하여(25.8%)"의 순위로 나타났다.

방송통신대학의 입학 동기 및 목적과 비교해 보면 (방송통신대, 1996),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81.3%)", "직업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61.3%)", "대학원 진학을 위하여 공부할 수 있기 때문(53.1%)"의 순위로 나타났는데 독학사 응시이유와는 우선 순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는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로 나타났지만 독학사 취득자에서는 "자기 성취감을 위해서"가 1순위로, 방송통신대학에서는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가 1순위로 나타났다.

표6. 독학사 응시 이유

구 分	가중점수의 합	우선순위
자기성취감을 위해	74	1
대학원 진학을 위해	55	2
대학졸업자로서 사회적 인정을 받고 싶어서	39	3
간호전문직인으로서의 발전을 위해	26	4
승진 및 보수의 보상이 기대되며 때문	18	5

응시이유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항목에 우선순위를 기록하게 하였으며 1위에는 5점, 2위에는 4점, 3위에는 3점, 4위에는 2점, 5위에는 1점을 곱하여 각 항목의 가중점수의 총합을 구하였다.

4. 독학사 시험외에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한국방송대학교나 학위특별과정에 응시한 경험

표 7에 의하면, 독학사 시험외에 학위취득을 위해 한국방송대학교나 학위특별과정에 응시한 경험이 77.8%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2.2%는 한국방송대학교에서 간호학외의 타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에

다시 간호학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다시 독학간호학사를 취득하였거나 한국방송대학교에 학기중에 응시하여 독학간호학사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독학사 시험외에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한국방송대학교나 학위특별과정에 응시한 경험

구 분	인 수	백 분 율
유	4	22.2(방송대 편입학중에 독학사로 전환(2), 방송대 타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 간호 교육학 전공중에 응시(1) 응시한 경험 있음(1))
무	14	77.8
계	18	100.0

5. 한국방송대학교나 4년제 대학의 편입과정 대신 독학간호학사 시험을 택한 이유?

표 8에 의하면 한국방송대학교나 4년제 대학의 편입과정 대신 독학간호학사 시험을 택한 이유를 해당 부분 모두 선택 하게 한 결과 "학위취득기간이 짧아서" "출석강의 없이 자유로운 시험준비를 할 수 있어서"가 순위로 나타났다.

표 8. 한국방송대학교나 4년제 대학의 편입과정 대신 독학간호학사 시험을 택한 이유

구 분	건 수
학위취득기간이 짧아서	13
출석강의 없이 자유로운 시험준비를 할 수 있어서	12
직장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4
방송통신대학 이수과정이 힘들어서	3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이 어려워서	1
간호학사 취득을 위해서 (방송대학졸업후 간호학학사를 취득하고자)	1

6. 적절한 독학사 시험 실시 회수

적절한 독학사 시험 실시 회수는 현행대로 1년에

1회가 72.2%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9. 적절한 독학사 시험 실시 회수

구 分	건 수	백 분 율
현행대로 1년에 1회	13	72.2
현행 보다 자주 2회	5	27.8
계	18	100.0

7. 독학간호학사 시험과목수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의 시험과목수가 적절한지에 대하여 교양과목은 83.3%, 전공과목은 72.2%가 "보통이다"로 나타났다.

한국방송대학의 3학년 전공과목은 기초간호과학 I, II, 간호과정 I, II, 가족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아간호학, 청소년 간호학, 노인간호학, 간호연구, 지역사회 간호학이며 4학년전공과목은 간호관리학, 보건교육, 고급 간호연구, 간호지도자론, 재활간호, 간호학 특론, 응급 및 재해간호이다.

한국방송대학의 간호학전공과목과 독학간호학의 전공과목과 비교해 보면 과목으로써 방송대학의 기타과목은 모두 임상간호학 과목에 포함되고 있다 하겠다.

표 10. 독학간호학사 시험과목

구 分	교양과목		전공과목	
	건 수	백분율	건 수	백분율
너무많다	1	5.6	2	11.1
많다	2	11.1	1	5.6
보통이다	15	83.3	13	72.2
적다			2	11.1
너무 적다				
계	18	100.0	18	100.0

8. 선택한 교양과목

독학간호학사 취득자가 선택한 교양과목은 국어와

국사, 국사와 외국어를 선택한 경우가 각각 50.0%였고, 국어와 외국어를 선택한 경우는 없었다.

표 11. 선택한 교양과목

구 분	건 수	백 분 율
국어, 국사	9	50.0
국사, 외국어	9	50.0
국어, 외국어	0	
계	18	100.0

9. 문항수

표 12에 의하면, 전공과목별로 주관식 20문항, 객관식 4문항의 문항수가 적절한지에 관한 질문에서 객관식 문항은 간호연구방법론은 94.4%, 간호행정학은 100.0%, 간호과정론은 94.4%, 임상간호학은 77.7%에서 "적당하다"로 나타났다. 주관식 문항은 간호연구방법론 77.7%, 간호행정학 83.3%, 간호과정론 83.3%, 임상간호학 72.2%가 "적당하다"로 나타났다.

표 12. 문항수

구 분	간호연구방법론		간호행정학		간호과정론		임상간호학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객관식 문항수								
너무많다					1	5.6		
많다					1	5.6	1	5.6
적당하다	17	94.4	18	100.0	17	94.4	14	77.7
적다	1	5.6					2	11.1
너무적다								
주관식 문항수								
너무많다								
많다	3	16.7	2	11.1	2	11.1	4	22.2
적당하다	14	77.7	15	83.3	15	83.3	13	72.2
적다	1	5.6	1	5.6	1	5.6	1	5.6
너무적다								
계	18	100.0	18	100.0	18	100.0	18	100.0

10. 주관식 문제의 문제당 점수 배점 정도

표 13에 의하면 주관식 1문제당 10점 배점은 적당하다가 50.0%, 많다가 38.9%, 너무 많다가 11.1%로 50.0%는 적당하다로 50.0%이상이 1문제당 배점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주관식 문제의 문제당 점수 배점 정도

구 분	건 수	비 율
너무 많다	2	11.1
많다	7	38.9
적당하다	9	50.0
적다		
너무 적다		
계	18	100.0

11.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의 나이도에 대한 인지도

표 14에 의하면 교양과목의 나이도 중 국어를 선택한 자 중 63.6%, 국사를 선택한 자 중 77.7%, 외국어를 선택한 자 중 100.0%에서 나이도가 적당하다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과목의 나이도는 간호연구방법론은 61.1%가 "적당하다"로, 33.3%가 "높다"와 "매우높다"로 간호행정학은 72.2%가 "적당하다"로 22.2%가 "높다"와 "아주 높다"로, 간호과정론은 72.2%가 "적당하다"로 27.8%가 "높다와 매우높다"로, 임상간호학은 50.0%가 "적당하다"로 44.4%가 "높다와 매우 높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연구방법론은 61.1%, 간호행정학, 간호과정론은 72.2%가 나이도가 "적당하다"로 느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임상간호학은 44.4%가 "난이도가 높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에서는 임상간호학의 문항수는 객관식 77.7%, 주관식 72.2%가 적절하다고 나타났으나 임상간호학은 실제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정신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5개 과목을 포함하고 있는데 비해 실제 문항수는 24문항으로 문항수에 비해 과목이 너무 광범위하여 상대적으로 나이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14.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의 난이도

구분	*교양과목			전공과목		
	국어	국사	외국어	간호연구방법론	간호행정학	간호과정론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너무높다	2(18.2)	1(5.6)	1(5.6)	1(5.6)	1(5.6)	2(11.1)
높다		1(5.6)	5(27.7)	3(16.6)	4(22.2)	6(33.3)
적당하다	7(63.6)	14(77.7)	7(100.0)	11(61.1)	13(72.2)	13(72.2)
낮다	1(9.1)	2(11.1)		1(5.6)	1(5.6)	1(5.6)
너무낮다						
무응답	1(9.1)					
계	11(100.0)	18(100.0)	7(100.0)	18(100.0)	18(100.0)	18(100.0)

* 교양과목은 응답자가 선택한 두과목에만 응답한 것임

12. 독학간호학사 과목합격인정 및 과목낙제 필요성, 평가영역 사전지식에 관한 의견

표 15에 의하면, 72.2%가 과목합격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나타났고 77.8%에서 과목낙제가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4단계 시험에서는 과목합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 현행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목낙제가 없이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할 경우 합격이 되는 현재도에 대해 의외로 과목낙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83.3%가 평가영역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6.6%가 평가영역에 대한 지식없이도 독학사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독학간호학사 과목합격 인정 및 과목낙제 필요성, 평가영역 사전지식에 관한 의견

구 分	과목합격 인정		과목낙제필요성		평가영역 사전지식 여부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예	6	33.3	14	77.8	15	83.3
아니오	13	72.2	4	22.2	3	16.6
계	18	100.0	18	100.0	18	100.0

13. 평가영역

표 16에 의하면 평가영역이 간호행정학은 83.3%, 간호연구방법론과 간호과정론은 72.2%가 "적절하다"로

나타났고 임상간호학(성인, 모성, 아동, 정신, 지역)은 44.4% - 50.0%에서 "적절하다"로, 44.4%가 "잘모르겠다"고 나타났다.

간호행정학은 66.7%, 간호연구방법론 및 간호과정론은 61.1%가 평가영역에 의거해서 출제되었다고 나타났으며 33.3%가 "잘모르겠다"로 나타났다. 임상간호학 중 성인, 모성, 아동간호학은 38.9%, 정신간호학은 44.4% 지역사회간호학은 50.0%가 "평가영역에 의해 출제되었다"로 나타났고 모성, 지역사회간호학은 44.4%, 성인, 아동, 정신간호학은 50.0%가 "잘모르겠다"로 나타나 임상간호학 분야의 평가영역의 조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6. 평가영역의 적절성 및 평가영역에 의거해서 출제되었는지의 여부

구 分	예		아니오		잘모르겠다		계
	건수(비율)	건수(비율)	건수(비율)	건수(비율)	건수(비율)	건수(비율)	
전공과목의 과목별 평가영역의 적절							
간호연구방법론	13(72.2)	2(11.1)	3(16.7)	18(100.0)			
간호행정학		15(83.3)		3(16.7)	18(100.0)		
간호과정론	13(72.2)	2(11.1)	3(16.7)	18(100.0)			
임상간호학 성인간호학	9(50.0)	1(5.6)	8(44.4)	18(100.0)			
모성간호학	8(44.4)	2(11.2)	8(44.4)	18(100.0)			
아동간호학	8(44.4)	2(11.2)	8(44.4)	18(100.0)			
정신간호학	9(50.0)	1(5.6)	8(44.4)	18(100.0)			
지역사회간호학	9(50.0)	1(5.6)	8(44.4)	18(100.0)			
과목별 평가영역에 의거 출제되었는지의 여부							
간호연구방법론	11(61.1)	1(5.6)	6(33.3)	18(100.0)			
간호행정학		12(66.7)		6(33.3)	18(100.0)		
간호과정론	11(61.1)		7(38.9)	18(100.0)			
임상간호학 성인간호학	7(38.9)	2(11.1)	9(50.0)	18(100.0)			
모성간호학	7(38.9)	3(16.7)	8(44.4)	18(100.0)			
아동간호학	7(38.9)	2(11.1)	9(50.0)	18(100.0)			
정신간호학	8(44.4)	1(5.6)	9(50.0)	18(100.0)			
지역사회간호학	9(50.0)	1(5.6)	8(44.4)	18(100.0)			

14. 전공과목이 간호학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출제되었는지 ?

표 17에 의하면 간호연구방법론, 간호행정학, 간호과정론은 83.3%, 임상간호학은 55.5%에서 간호학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고 임상간호학은 33.3%가 아니나 11.2%가 잘모르겠다로 나타났다. 44.5%가 아니다와 잘모르겠다로 나타나 전공과목 중 임상간호학의 출제문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17. 간호학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출제되었는지?

구 분	예	아니오	잘모르겠다	계
	전수(비율)	전수(비율)	전수(비율)	전수(비율)
간호연구방법론	15(83.3)	2(11.1)	1(5.6)	18(100.0)
간호행정학	15(83.3)	2(11.1)	1(5.6)	18(100.0)
간호과정론	15(83.3)	3(16.7)		18(100.0)
임상간호학	10(55.5)	6(33.3)	2(11.2)	18(100.0)

15. 독학사 시험을 위해 사용한 학습방법

표 18에 의하면 독학사 시험을 위해 사용한 학습방법은 자학자습방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독학사 시험을 위해 사용한 학습방법

구 분	건수
자학자습방법	17
기타(간접강의)	2

16. 독학간호학사 제도의 문제점

표 19에 의하면 독학간호학사 취득자가 생각하는 독학사제도의 문제점은 정보부족, 독학사 취득후 대우문제, 사회적 인식부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9. 독학간호학사 제도의 문제점

구 分	가중점수의 합	우선순위
정보부족	31	1
독학사 취득후 대우문제	26	2
사회적 인식부족	25	3
합격률 저조	13	
과목별 평가영역의 부적절	5	
시험과목의 난이도	4	
시험과목, 실시시기	3	
기타(체계적인 교과과정 미흡)	3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항목에 우선순위를 기록하게 하였으며 1위에는 3점, 2위에는 2점, 3위에는 1점을 곱하여 각 항목의 가중점수의 총합을 구하였다.

17. 타전공에 비해 합격률이 낮은 이유

표 20에 의하면 독학간호학사 취득자가 생각하는 타전공에 비해 합격률이 낮은 이유를 시험정보의 부족, 난이도가 높다. 참고도서가 부족하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0. 타과목에 비해 합격률이 낮은 이유

구 分	가중점수의 합	우선순위
시험정보가 부족하다	21	1
난이도가 높다	21	1
참고도서가 부족하다	20	3
시험과목수가 많다	13	
시험준비기간이 부족하다	11	
주관식 비율과 점수가 높다	12	
과목별 평가영역이 부적절하다	2	
기타(선입견 때문에 응시율 낮다)	3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항목에 우선순위를 기록하게 하였으며 1위에는 3점, 2위에는 2점, 3위에는 1점을 곱하여 각 항목의 가중점수의 총합을 구하였다.

18. 독학사 준비시 어려운점

표 21에 의하면 독학사 시험준비시 어려운 점은 정보부족, 참고도서 부족으로 나타났다.

표 21. 독학사 준비시 어려운 점

구 分	건 수
정보부족	5
참고도서 부족	2
전공과정난이도 높음	1
교재선택의 어려움	1
시험과목의 많음	1
평가영역의 광범위	1
주관식 배점비율의 높음	1
교재가 시험내용과 동떨어짐	1

19. 건의사항

독학간호학사 취득한 자의 대한간호협회나 국립교육평가원에 건의사항으로는 사회적 인정, 시험정보의 제공순으로 나타났다.

표 22. 건의사항

구 분	전 수
사회적 인정	5
시험정보	4
문제점 부족	1
난이도 엄격히 관리	1
평가영역의 광범위	1
간접 홍보	1
주관식 배점비율의 높음	1
개인 점수 및 석차 공개	1
학습지침서가 어려움	1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독학간호학사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본 연구자가 작성하고 학술위원회에서 검토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1996년 7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독학간호학사 취득자 62명중 설문지에 응답한 18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가 조사되었으며, 분석된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결론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독학사 응시자수 감소 및 낮은 합격률

독학간호학사 응시자수는 1회 3,218명에서 4회 175명으로 점차 감소하였고 합격률은 1회 0.1%에서 4회 4.6%로 높아졌으나 독학사 전체학과의 합격률(4회 23.3%)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2) 시험과목

독학간호학사 시험과목이 적절한지에 관한 문항에서 교양과목은 83.3%, 전공과목은 72.2%가 보통이다로 너무 어렵지도 쉽지도 않게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문항수, 난이도 및 출제방향

객관식 문항수는 간호연구방법론 94.4%, 간호행정학은 100.0%, 간호과정론은 94.4%, 임상간호학은 77.7%가 적당하다로, 주관식 문항은 간호연구방법론 77.7%, 간호행정학 83.3%, 간호과정론 83.3%, 임상간호학 72.2%가 적당하다로 나타났다.

전공과목의 난이도는 간호연구방법론은 61.1%, 간호행정학, 간호과정론은 72.2%가 적당하다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임상간호학은 50.0%가 적당하다로 44.4%가 난이도가 높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전공과목중 특히 임상간호학의 난이도가 재검토되어 할 것으로 보인다.

임상간호학은 실제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정신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5개과목을 포함하고 있는데 비해 실제 문항수는 24문항으로 문항수에 비해 과목과 내용이 광범위하여 시험문제가 임상과목을 대표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다고 느끼는 것으로 추정된다. 간호연구방법론, 간호행정학, 간호과정론은 83.3%가 간호학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출제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임상간호학은 55.5%가 그렇다고 나타나 출제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려된다.

5) 합격사정 기준

현 4단계 시험에서는 과목합격과 과목낙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할 경우 합격되는데 72.2%가 현행대로 과목합격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나타났고 현행사정기준과 반대로 77.8%가 과목낙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합격사정기준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평가 영역

평가영역은 간호행정학이 83.3%, 간호연구방법론, 간호과정론은 72.2%가 적절하다로 임상간호학은 44.4%(모성, 아동)에서 50.5%(성인, 정신, 지역)가 적절하다로 나타났다.

간호행정학은 66.7%, 간호연구방법론 및 간호과정론은 61.1%가 평가영역에 의거해서 출제되었다고 나타났으며, 임상간호학중 성인, 모성, 아동간호학은 38.9%, 정신간호학은 44.4%, 지역사회간호학은 50.0%가 평가영역에 의해 출제되었다고 나타나 전공과목중에서도 임상간호학의 평가영역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 독학사 문제점 및 건의사항

독학간호학사를 응시하는 이유가 자기성취감을 위해, 대학원 진학을 위해, 대학졸업자로서의 사회적 인정을 받고 싶어서의 이유로 독학사를 응시, 취득했다고 응답했으나 독학사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정보부족, 취득후 대우문제, 사회적 인식부족이 지적되었고 건의

사항으로 사회적 인정 및 정보부족, 독학사 취득후 대우문제가 지적되었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 독학사를 취득했으나 취득후에도 사회적인식 및 대우가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시하는 이유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되므로 추후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제 언

전문대학 간호과 졸업자를 위한 학사학위과정인 독학간호학사, 방송대학 보건위생학과 간호학전공 및 학사학위특별과정 중 방송대학과 학사학위 특별과정은 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간호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나 독학사제도는 국가가 시행하는 제도로 간호교육의 학사학위과정의 질적 수준을 위한 적절한 평가 및 관리가 어렵다. 또한 4회 실시된 시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합격률이 낮을 뿐만아니라 응시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방송대학의 입학정원 증원과 학사학위과정의 계속적인 신설로 간호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문호가 넓어졌고 졸업생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원화된 간호교육제도에서 학사학위취득과정이 삼원화됨으로써 간호교육제도가 더욱 다원화되었고, 간호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간호교육에 있어서 독학사제도가 적합한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전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의 중추적 부분을 담당하는 간호인력을 양성하는 간호교육의 질

적수준의 유지와 교육제도의 일원화가 바로 의료의 질을 보장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앞으로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업무가 국립교육평가원에서 국립학교로 위임된다면 전공시험과목, 과목별 문항수, 평가영역 등 전반적인 사항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특히 임상간호학은 실제 5과목을 포함하고 있어 한과목당 배정되는 문항수가 적고 4단계 시험에서는 과목구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시험준비의 어려움과 더불어 정확한 실력측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려된다. 응시자의 응시이유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질적인 시험관리와 취득후에도 다른 학사자격증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김조자(1996), 한국의 간호교육제도, 중한간호지도자 학술포럼 보고서
대한간호협회, 제1차 장기사업 보고서
대한간호협회, 제2차 장기사업 보고서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제도안내서(1996), 국립교육평가원
독학학위제 활성화 방안 연구(1991), 중앙교육평가원
방송대 보건위생학과(1996), 방송대 간호인 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학위취득소식(1995, 1996), 국립교육평가원 학위검정부